

행복도시 이야기

행복청, 해외 명문대 유치 프로젝트 순항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분교 설립 협약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업무협약(MOA)



트리니티대학 업무협약(MOA)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조감도 (복합편의시설 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트리니티대학 분교 조감도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내)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해외 명문대 분교 유치 프로젝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2개 해외 명문대학과 잇따라 업무협약(MOA)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교육부 설립승인 신청부터 2019년 개교까지 행복도시 분교 설립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12월 11일(월) 10:30(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을 방문하여 로베르토 줄리아니(Roberto Giuliani) 총장과 '산타체칠리아음악원 세종 분교'의 2019년 개교를 합의하고, 협약(MOA)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협약(MOU)을 추진과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협약(MOA)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행복청은 내년 외국대학 설립보조금 지급, 입주공간인 복합편의시설 제공, 한예종 및 세종 예술고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Conservatorio Statale di Musica Santa Cecilia in ROMA)은 1566년 개교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 명문 국립 음악원으로, 재학생 1,477명 (세계 39개국 유학생 182명 (12%), 한국인 31명) 규모이다.

소프라노 조수미,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

아니 등을 배출하였고, 2017년 현재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8위의 명문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이탈리아 본교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이탈리아 본교에 소속된 교수진이 한국 분교에 참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과정 일부를 본교에서 필수로 수학하도록 하고, 본교 졸업장 동시 수여 및 이탈리아어 교육 병행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설립위치는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교육부 앞 복합편의(문화)시설이며 인근에 건설 중인 아트센터와 연계해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9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들고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중 하나인 트리니티 대학도 세종시 분교 설립에 합의했다.

아일랜드 최초 대학인 트리니티대학은 영국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대학과 함께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세계대학평가(QS)에서 88위로 인정된 아일랜드 최고 명문대학이다.

협약(MOA) 체결 후 진행된 트리니티 대학 교수진과의 회의에서 행복청은 내년에 설립보조금 지급, 입주공간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제공, 한국의 여러 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면역학(Immunology), 분자의학(Molecular Medicine), 중개종양학(Translational Oncology) 등 바이오·메디컬 관련 학과 교수들이 세종시 진출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트리니티대는 2018년 내에 한국법인 대표자를 임명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출학과를 정하기로 하고, 내년 초에 이를 협의할 대표단이 행복도시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프랜더게스트 총장은 "행복도시 진출이 트리니티대와 한국 대학 및 기업 간 협력의 관문(Gateway)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산타체칠리아 세종분교는 단순히 외국 음악대학 유치를 넘어 세종예술고 및 한국예술종합대학과 연계해 중부권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트리니티대는 중부권 산업클러스터(바이오/오송, 정보통신/대덕)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성과를 제시했다.

참고로 국내에선 송도에 4개 대학과 부산에 독일대학 FAU가 있지만 FAU는 철수가 확정돼, 사실상 세종이 외국대학을 가진 두 번째 도시가 된다.

2018년 예산 2,910억 원 확정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

2018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이 정부안 2,817억원 대비 93억원 증액된 2,9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포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행복청 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3,125억원 대비 6.9% 감소하였으나, '추가이전 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준비비',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청소년 복지시설(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사업규모 조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아트센터 공사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시설 설계비' 등 주요 쟁점 사업 예산도 반영되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2개 사업 94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도시건설 일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별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비(120억원) 및 이전공무원, 청사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비(311억원)가 반영되었고,

주요 공공·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한 9개 광역도로(1,342억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원), 선관위·세무서·경찰서 청사(189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157억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원), 청소년 복지시설(6억원)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완공소요(90억원) 등도 반영되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요한 신규 사업 및 장기간 지연사업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도시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앞장

타워크레인 안전책임자 합동점검 회의 개최

행복청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책임자 등 150여 명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책임자 합동점검 회의'를 12월 20일(수)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수립중인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장 안전책임자들이 실무에서 체험한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제안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행복도시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안전관리 및 점검 실효성 강화 ▲안전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안전한 건설풍토 조성 및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한 건설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책임자의 안전 서약과 대표자 결의문 낭독 등 건설현장 참석자 모두 안전 실천의지를 다졌다.



안전책임자 안전서약

행복청, 공공청사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에 총력

행복청, 공공청사 건축현장 담당자 간담회 및 공공건축 안전사고 하자제로 협의회 개최



공공건축 안전사고·하자제로 협의회 개최



공공건축 건설현장 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공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시공사 대표 및 소장과 간담회를 12월 14일(목)에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사현장이 많아 인력 및 자재수급이 어려운 건설현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공공청사의 품질향상에 힘쓰는 건설사를 격려하고, 복합 문화시설 등의 공공청사에 입주예정인 해외 대학들이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행복청은 공공건축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매달 공공건축 안전사고·하자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를 주제로 공사감리자, 현장대리인, 각 현장별 안전관리자,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하여 현장별 공정에 맞는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각 현장별 안전관리 및 애로점 품질개선 방안등을 토의한다.

행복청은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 및 철저

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행복도시 내 공공청사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선도

6-3생활권에 도시계획 단계부터 분산식 빗물관리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내·외 다른 개발 사업에도 저영향개발(LID)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신규 조성 단계부터 ‘물순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된 최초의 모범사례로서, 행복도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주제로 ‘친환경 빗물관리 국제세미나’를 지난 7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행복도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선도적 사업으로, 향후 국내외 개발 사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 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자갈 식생 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행복도시 산울리(6·3생활권)에는 적극적인 빗물관리 목표량의 적용을 통해 물 순환 친환경 생태 모범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국내 최초로 ▲지하 회전교차로 ▲지형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입체 복합개발 ▲저영향개발(LID)기법 등 새롭고 특색 있는 다양한 시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향후 행복도시 홍보관에 저영향개발(LID)기법 홍보 부스를 설치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공감하는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면서, “작공 10주년을 맞은 행복도시가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가 되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영양개발(LID)기법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개선과 수질개선, 열섬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만들미래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Policy on Korean Peninsula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평화' 최우선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상호 존중'의 정신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방법

-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 의견 코너에 의견 게시
- 국민신문고 (www.apeis.go.kr) "국민제언" 코너에 의견 게시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39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 의견 담당자 앞으로 편지

통일부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 · 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 ·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 · 과장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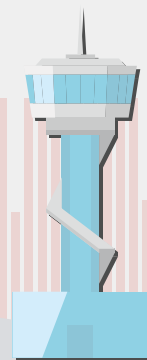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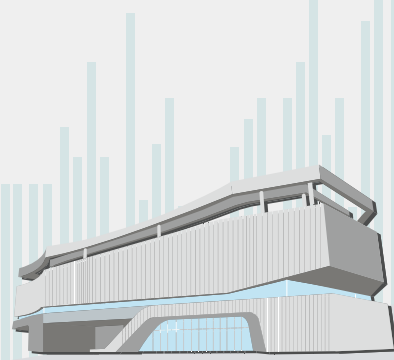
‘밀마루 전망대’ 및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설날, 추석 당일은 14:00부터 운영)



밀마루 전망대

위치_ 세종시 도움3로 58(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 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 세종시 어울로 247(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 044-867-7911~2

1월 문화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기간)	장소	문의
세종 아리스 오케스트라 『신년나눔음악회』	'18. 1. 18(목) 19: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행복청 044-200-1474

※ 공연(행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이야기
2018. 1. 2(화) Vol. 128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www.naacc.go.kr
T. 044.200.3095 E. naaccadmin@korea.kr

디자인·제작 ㈜자루애드

행복청
SNS 채널

facebook.com/happycitysejong

blog.naver.com/macc2030

twitter.com/HappycitySejong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검색해보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